

삼성전자 DS부문 19년도 가을학기 장기현장실습 소감

1. 송OO (반도체연구소)

“실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배치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간의 협업을 보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무 및 역할들을 알게 되었고,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된 점은 학교에서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분석법들을 실제 W/F DATA로 계측 및 분석하며 직접 실무에 참여해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학교 수업만 듣는 것과는 이해도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2. 고OO (S.LSI사업부)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장기현장실습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6주동안 실습에 참여하고 나니 해보지 않았다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생으로서 졸업하고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막연한 생각만 들었는데 이번 실습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자 계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면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 지 알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송OO (반도체연구소)

“과제를 하는데 있어서 개발 환경과 하드웨어 자원(GPU)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부서 분들에게 직무적으로 혹은 생활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항상 자세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보고 인공지능 개발 process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명세서없이 제 스스로 시스템을 설계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해봤다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박OO (기흥/화성/평택 단지)

“제조 과정에서 나온 Big Data에 통계적 분석 및 ML 알고리즘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한 Data 분석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실습을 통해 Data 전처리 및 시각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위해 타 엔지니어들과 수많은 협의를 하며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강OO (S.LSI사업부)

“첫번째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업을 경험해봄으로써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남은 두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디지털 설계에 대한 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은 학기는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려 합니다. 또한 삼성에 대해 안 좋은 소문에 걱정도 했지만 실제 경험해보니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라는 걸 느꼈습니다.”